

2020년 12월 시엠립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계신 선교 동역자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대면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난 한해의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가 숨겨져 있었음 믿고 또 발견해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섬기는 시엠립한인장로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3월-9월초까지 쉬었던 현지인어린이예배가 재개되면서 새친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주 새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12월현재 30-40명정도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를 위해서 10월부터 주일오후에 연습을 하고, 12월에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하여 구제사역과 함께 심방을 통해 지속적인 신앙교육이 가능하도록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기적인 방역활동도 했으며, 예배실 환경정리와 어린이 주중활동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린이전도에 있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로인해 차량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부족한 교사들, 전담사역자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년 단기선교사나 견습선교사의 지원이 된다면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변화는 지역 앙코르대학 한국어과에 강사로 요청을 받아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선교사들께서 양육하던 학생들을 한국어과로 보내고 앞으로 신학공부, 유학, 한국어교사, 현지사역자 등의 진로를 위해 함께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선교적 자원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너무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 됩니다. 현지어와 영어를 섞어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시엠립한글학교 교사로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MK(선교사자녀)또는 교민자녀들로 구성된 한글학교이다보니 선교적 차원에서 귀하지만, 지역전도와 한인교회 사역으로도 아주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함께 주일식사 봉사를 돕던 현지인 사빈자매가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인 이후 함께 성경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며, 주일학교 봉사를 함께 할 만큼 우리를 돕는 사역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례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왕성한 선교활동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거주하고 사역중인 한인교회 임대 토지에 대한 재계약 문제(2년9개월)와 더불어 토지 주인의 이해하기 힘든 불만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현지인어린이예배를 계속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임선교사이신 이명수 목사님께서 토지 건물 사용권에 대한 이양을 제게 명확히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후폭풍들이 남겨진 것입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에 첫째 하은이와 둘째 하람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민이도 지역 유치원에 입학예정입니다. 모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2020.12.31.(목)

인도차이나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임창무 정윤영 하은 하람 하민 선교사 가족 올림

<선교 기도제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16)

1. 순종의 훈련(묵상, 성경통독)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교사역 되기를
2. 선교2년차로서 수습선교사 기간을 잘 마치고, 부부와 자녀들(하은, 하람, 하민)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언어의 진보를 주소서
3. 후원교회(안동교회 외)와 시엠립한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4. 어린이 교육사역 및 돌봄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준비되도록..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MK스쿨, 다문화가정예배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동역자, 재정)이 준비되도록
5.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현지유치원, 초등학교 진학 및 적응이 잘 되어 가도록
6. 토지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재계약문제, 현지인어린이예배 지속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7.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단기 선교사와 견습 선교사, 교사, 현지인전담사역자 등

<교회소개>

현재 섬기고 있는 **시엠립한인장로교회**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에 소재한 한인장로교회로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을 주된 목표로 하여 한국교민들과 선교사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2세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표 어 :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엡 4:3, 요17:21)

- 목 표 : 1. 신앙의 자립화 2. 전도의 생활화 3. 성도의 선교화 4. 개척,인재양성

<현재 및 향후사역>

- 1) 한인예배 2) 현지인어린이예배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4) 한글교육 5) 성경통독
- 6) NGO사역 7) 신학선교세미나 8) 어린이도서관 9) 다문화예배 및 모자시설

<연락처>

- 1) 한국: 이청걸 010-5141-0816
- 2) e-mail&SNS: lcm4247@hanmail.net / 카톡ID lcm4247 (임창무)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pxawtj (시엠립한인장로교회)
- 3) 전화번호: (한국) 070-7574-3240 / (855) 087-751-024. (855) 077-709-430
- 4) 주소: No. 212 Sala Kanseng Village, Svay dangkum Commune, Siem Reap, Cambodia
- 5) 우체국사서함: P.O.Box 93149 Siem Reap Angkor Cambodia

*카카오톡 채널로 선교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엠립한인장로교회'를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예) 카카오톡>검색>'시엠립한인장로교회' 검색>채널추가>소식받기 설정

